

➤ Advice : 3

학원강의 활용법

종합반 합격생이 전하는 수험생활

1. 서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윌비스 한림법학원 과외식 침삭반을 수강하여 12회 변시에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저는 909.94점으로 합격하였으며 11회 변시에 비하여 27점을 향상시켰습니다. 큰 상승폭이 아님에도 이 수기를 작성하는 이유는 선택형 점수가 전 해보다 낮아졌음에도 사례 및 기록형 점수가 50점 가까이(49.73점 상승) 올랐고, 과외식 침삭반 강의가 이에 크게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선택형만 잘 보면 합격한다는 속설에 따라 선택형 판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전략을 취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기가 부족한 저의 경우 선택형 판례만 반복해서 문구를 달달 외우는 방법은 오히려 고역이었고, 안정적인 사례, 기록형 점수를 확보하는 전략이 12월까지 지치지 않고 쪽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현명한 길이었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고, 선택, 사례형 모두에 어려움을 겪는, 저와 유사한 다른 분들이 사례 및 기록형에서 고득점할 실력을 짧은 시간 내에 갖출 수 있음을 공유하고자 이 수기를 씁니다.

2. 성적표 인증

※ 11회 성적 (선택형 101개 / 총점 882.71)

선택형			논술형									전문직법률분야		
공법	형사법	민사법	공법			형사법			민사법			국제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3문	기록형	1문	2문
80.00	70.00	102.50	44.63	46.85	44.20	48.18	47.38	53.74	82.81	43.94	49.24	86.61	39.95	42.68
			135.68			149.30			262.60			82.63		
총점			882.71											

※ 전 과목 총점 1,660점 만점

공 법: 400점 [선택형 100 + 사례형(1문, 2문) 200 + 기록형 100]

형사법: 400점 [선택형 100 + 사례형(1문, 2문) 200 + 기록형 100]

민사법: 700점 [선택형 175 + 사례형(1문, 2문, 3문) 350 + 기록형 175]

전문직법률분야: 160점

※ 위 성적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정당하지 않게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12회 성적 (선택형 92개 / 총점 909.94)

선택형			논술형										전문직법률분야	
공법	형사법	민사법	공법			형사법			민사법				국제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기록형	1문	2문	3문	기록형	1문	2문
55.00	75.00	100.00	50.62	59.02	58.47	59.80	50.09	49.44	76.02	51.10	50.70	98.26	40.18	36.24
			168.11			159.33			276.08				76.42	
총점			909.94											

※ 전 과목 총점 1,660점 만점
 공 법 : 400점 [선택형 100 + 사례형(1문,2문) 200 + 기록형 100]
 형사법 : 400점 [선택형 100 + 사례형(1문,2문) 200 + 기록형 100]
 민사법 : 700점 [선택형 175 + 사례형(1문,2문,3문) 350 + 기록형 175]
 전문직법률분야 : 160점
 ※ 위 성적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정당하지 않게 사용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11회에 비하여 선택형을 9개나 더 틀렸으나, 사례 및 기록형이 49점을 받은 형기록을 제외하면 모두 50점을 넘겼으며, 특히 공법 2문, 공기록, 형사 1문 등이 58~9점, 민기록 98점 등 사례, 기록형 부분에서 50점 가까이 상승하며 선택형의 부진을 충분히 메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3. 공부방법

- 1순환 (사례형)

저는 11회 변사에서 발표가 난 직후인 4월 말에 학원을 등록하고 수강을 시작했습니다. 월비스 첨삭반의 다른 학원과의 차별점은 강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민사법 김남훈/형사법 이재철/헌법 선동주/행정법 김현민 교수님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모든 과목과 관련하여 오전에 학원에서 제공하는 독서실에서 그 날의 진도를 예습한 후, 1시간 동안 사례형 모의 시험을 보고 선택형 10문제를 풀었으며, 그 직후에 사례형 해설 강의를 듣고 다시 독서실에 가서 복습하는 식의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특이한 점은 교수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배제와 집중'을 강조하신다는 점입니다. 요약하자면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에 모두가 모를 만한 문제는 과감히 배제하고 유력한 예상문제나, 반복 출제되는 단골 문제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합격에 필요한 점수만 확실하게 획득하자

는 공부법입니다. 이에 따라 교수님들은 제공된 문제의 해답 부분의 복습만 충실히 하고, 별도로 공부할 것을 만들지 않을 것을 주문하십니다.

저는 1순환 때는 합격자 발표 전까지 4개월 간의 휴식으로 인해 법리를 많이 잊어버린 상태였으며, 사례형 작성법도 가물가물한 상태여서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답안을 꼭 써보고 쟁점을 구상이라도 해보라는 교수님들의 조언에 따라 부실한 답안이라도 꾸역꾸역 작성하였습니다. 주 1~2회 이루어지는 대면첨삭에서 첨삭 뿐 아니라 공부하면서 이해가 어려운 내용과 공부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질문하였는데, 그러한 질문과 답변들로 공부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례형 풀이에 집중했고 1순환 복습만으로는 시간이 남아 그 외 부분은 핸드북을 가볍게 읽기만 했습니다. 김남훈 변호사님께서 “시키는 것만 잘해도 사례는 일정 수준 이상 나온다.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를 믿고 따르면서 그 외의 사례는 풀지 않았습니다.

- 2순환 (기록형)

여타 학원들과 달리 월비스에서는 기록형을 여름에 한번에 정리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한 번에 총정리를 하고, 차후에 이를 복습만 하면 돼서 좋았습니다. 특히 김남훈 변호사님의 민사 기록형 강의가 난이도가 매우 높고 자료 퀄리티가 높아서 이때 폰 민사기록 자료로만 복습해도 기록형의 큰 줄기와 쟁점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록형의 실제 답안 작성보다는 메모를 반복 연습하였고, 실제 답안 작성은 거의 하지 않고 기출 문제들의 모범답안을 여러 번 읽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때 시간이 남을 때 전 과목의 최신판레집들을 별도로 구매하여 혼자 공부하였고 최판 정리는 3순환 초반까지 했습니다.

- 3순환 (사례형 진도별 모의고사)

8모 즈음 진행되는 3순환은 진도별 모의고사로, 저는 1순환 때와 동일한 강사 분들을 선택하고, 행정법만 서창교 교수님으로 변경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과목별로 번시에 출제 유력한 문제들이 진도별로 출제되고 그에 따른 관련 핵심 판례와 최신 판례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민사법의 경우 아직 번시에 출제되지 않은 쟁점이 집중적으로 출제되어 사례형 예상 문제들에 대비하였습니다. 헌법은 선동주 교수님께서 제공한 프린트 자료가 상당히 요약이 잘 되어 있어 별도의 기본서, 핸드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법의 경우, 이재철 교수님의 강의를 매우 체계적이고 실전적이었을 뿐더러, 대면 첨삭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정성스럽게 해주시는데 이때 제 형사법 사례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1순환 및 기록형 자료들도 매일 함께 복습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아는 법리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최신 판례,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OX 등 공부할 양이 산더미이며,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시기여서 운동 시간, 밥 시간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최신 판례나 어음수표법 및 보험법 등 각종 특강이 제공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게 부족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3순환 커리큘럼에는 선택형 또한 교수님들이 출판한 선택형 교재로 매일 일정 분량 풀게 되는데 기출 문제와는 다른, 예상문제 위주로 선지들이 구성되고 문제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제가 이를 충실히 복습하지 않은 탓에 제 실력으로 충분히 체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택형에 나오는 선지

공부를 이 때에 충실히 한다면 저보다 훨씬 고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모 이후인 이 시기는 절대적인 공부량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다만 학원에서 각종 자료, 최신 판례 특강, 선택형 강의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줄여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4순환(사례형 파이널)

10모 이후 시작되는 4순환은 진도별이 아닌 매일 전 범위에서 연습 문제가 출제되며, 사례형을 실전과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당시에도 제 실력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로 4순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1순환부터 사례형의 모든 강의의 답안에 1장짜리 실전 답안이 매일 나옵니다. 1~4순환 내내 실전 답안만 따로 모아서 꾸준히 반복 회독을 해온 결과, 4순환이 끝날 때 즈음에는 사례형의 틀을 전체적으로 잡아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일정한 퀄리티의 목차와 내용, 검토까지 갖춘 답안을 쓸 수 있게 되며, 일부 문제들은 출제를 예상해서 변시에 적중까지 하는 등 사례, 기록형 실력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느꼈습니다. 이 시기에 전 범위이기도 하고 시간에 맞춰 작성해서 실제 시험의 느낌으로 문제를 풀기에, 문제를 읽고 답안을 구상하며 실제 작성하는 시험의 루틴을 몸이 기억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순환에서 다루는 문제들도 유력한 예상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시험 직전에 볼 자료들에 포함시켜 그 실전 답안을 반복 복습하였습니다.

- 리마인드 특강(총정리)

12월초 '리마인드 특강'이라고 하여 2주간 앞서 강의한 자료들을 총 요약하는 특강을 진행하였는데 이 학원 커리큘럼의 '신의 한 수'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김남훈 변호사님은 1,3,4순환의 실전답안을 모두 리마인드 시켜주는 족집게 요약 강의를 진행하였고, 서창교 교수님은 예상 문제들을 정리한 자료를 나누어주시고 이를 풀어주는 강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그간 복습한 방대한 자료들을 빠르게 스캔하면서 기억을 되살리고, 예상 문제의 주요 쟁점들을 시험 전까지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리마인드 특강 이후에는 변시 전까지 학원 강의를 약 한달 간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독서실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며 그간 공부한 자료들을 복습하였고 중간중간 사례 풀이, 기록형 메모(실제 답안 작성은 한번만 함), 선택형 복습 등을 하였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강조하셨다시피, 1~4순환 자료만 다 보아도 웬만한 사례를 쓸 수 있으며, 자료 밖에서 출제된다면 모두가 모르는 문제이므로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시험 직전 최종 스퍼트를 하였습니다. 선택형은 최근 기출 3개년과 3순환 문제의 일부만 공부했으며, 마지막까지 보아야 할 사례, 기록형은 자료가 방대하지 않고, 그간 성실하게 복습해왔기에 이미 공부량 자체는 아주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과목별로 돌아가면서 전체 내용을 빠르게 훑고 제가 취약한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하였습니다.

4. 결

사례, 기록형은 선택형과 달리 스토리를 스스로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12월 중순부터 1월초까지 각 과목 실전답안 및 리마인드 특강 자료들을 5회독 이상 했으며,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에 플래그를 꽂아 단권화한 핸드북까지 3회독 정도 하였습니다. 시험 전날 및 당일에 이 전체를 빠르게

눈에 담고 시험에 임하였고, 막상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 미리 공부한 학설 대립, 판례, 검토 부분까지 대부분 한 편의 스토리처럼 떠올라 대부분의 답안들을 연습한대로 깔끔하게 작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선택형에서 부진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으나 저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례형에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원 없이 쓰고 나왔다고 생각했고, 11회 시험 당시의 저와는 상전벽해 수준의 답안이라고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점수에서 제가 확실히 공부가 잘된 문항들에서 58~9점을 기록하고 조금 부족했더라도 50점 중간선을 방어하는 등 그 실력 상승이 수치로 증명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실전 답안들을 따로 수기로 공책에 전부 요약하였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시간을 아껴 프린트물로 정리하고, 선택형을 1회독이라도 더 복습했다면 선택형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민사 사례 점수가 우수하지 않은데 제가 윤동환/박승수 변호사님들의 책으로 공부하여, 김남훈 변호사님의 강의와 일관성 있는 공부가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겪은 8개월을 요약하자면, 월비스 학원의 과외식 첨삭반은 누구나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단순히 '선택형 요행'이 아닌, '합격이 안정적인 종합적인 선사기 점수'를 만들어줄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포기하지 않으며 첨삭반의 큰 줄기를 잘 따라가면, 평소 자신의 기본기가 부족하거나 로스쿨에서의 공부가 미흡했더라도 충분히 좋은 답안을 작성할 실력을 갖추게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갈 길이 요원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과외식 첨삭반에서 교수님들과 계속 면담하면서 과외받는다느 느낌으로 하나하나 지식을 쌓고, 교수님들과 자기 자신을 믿고 공부 방향을 계속 잡아가면서 꾸준히 버틴다면 사례, 기록형에서 좋은 점수를 확보한 뒤, 선택형까지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은 점수를 받은 자신을 발견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